

최첨단·최신 트렌드 구경 오세요.

주택·건설·건축박람회

2015 강원 **eco+** 홈페어

GANGWON ECO HOME FAIR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11월 28일(토)

장소 춘천 호반체육관

*개막식: 2015. 11. 25 오후 2시
호반체육관 야외특설무대

참가업종

- 건축 자재
- 가구 및 인테리어
- 전원주택
- 주택 정보
-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 조경 및 공공시설
- 욕실 및 주방
- 냉난방 기기
- 창호재
- 조명 및 전기 시설
- 건설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 건설 신기술



▶문의 : 강원에코홈페어 홈페이지(<http://ecohomefair.kr>)

☎ 070-7098-8388

▶주최 : 강원도건설단체연합회 | 江原日報社

▶후원 : 강원도 | 춘천시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11일 오전 11시30분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리는 건설 CEO 경영연수에 참석.



은 11일 오전 11시30분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리는 건설 CEO 경영연수에 참석.

“올림픽 공사 외지업체가 독식 도내 업체들은 줄도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욱(새누리·태백) 의원은 10일 동계올림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올림픽 공사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선순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올림픽 공사 현장은 모두 외지 업체들이 점령하고 도내 건설업체들은 줄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는 공사 수주 후 다시 외지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 실질

홍성욱 “실질적 도내 업체 참여율 파악 대책 강구해야”

조영기 “올림픽 파급효과 높이도록 지역 업체 지원 필요”

최성재 “긍정적 지표 하나도 없어... 실질적 방안 찾아야”

정재웅 “올림픽플라자 건립 예산부담비율 명확히 밝혀라”

구자열 “최근 비리 연루 공직자 늘어나... 교육 강화 필요”

적으로 도내 업체의 올림픽 공사 참여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새누리·양구) 의원도 “대회는 강원도에서 하고 이익은 외지업체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올림픽 파급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심

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성재(새누리·원주) 의원 역시 “올림픽 공사와 관련한 어느 자료를 봐도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 대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올림픽 플라자에 대한 도의 예산 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웅(새정치·춘천) 의원은 “개·폐회식장이 포함된 올림픽 플라자 건립

에 도가 25%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도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몫을 떠안은 것 아니냐. 어떤 근거를 적용해서 이런 예산 부담비율이 나왔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도가 조직위원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인재개발원 행정감사에서는 신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열(새정치·원주) 의원은 “최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의회 사무처 행정감사에서는 서면 질문 및 5분 발언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원선영·심재환기자

“올림픽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외지업체 재하청 지적 구체적 사후활용안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0일 도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가 이날 동계올림픽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성재(원주·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이 지역 납품 업체들에게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실망만 커지고 있다”며 도내 업체들의 참여확대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홍성욱(태백·새누리당) 의원도 “강원도 업체들이 도급을 받아

지역업체 비율을 맞춘다고 해도 현장에 가보면 외지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도내 업체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외지에 넘기는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영기(양구·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해 행감에서도 도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관련 자료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올림픽 준비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나 염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병진 동계본부 건설추진단장은 “업체들의 공무원

들이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역업체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폐회식장 예산 부담비율 기준과 사후활용 방안을 정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웅(춘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폐회식장 장소가 옮겨지면서 시설관련 도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는데 비용 산출이나 예산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후활용 방안에서도 조직위와 도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고 활용노선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여진 beatle@kado.net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리는 ‘건설 CEO 경영연수’에 참석한다.